

다들

제 1 회 신입생 여학우 예비학교

신입생 여학우 만남의 날



905-8267

황강영 (5시30분~7시)

제 8 대 나라사랑 총여학생회



신입생 여학우 만남의 날

1992년 2월18일 1시 학생극장

대학생활이 무엇인지,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대학생활, 열심히, 잘,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싶다는 막연한 결심들...

학생회는 어떤 곳이지? 동아리 생활은 어떨까? 등

다양한 대학생활에 대해 많은 말씀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올바른 대학생활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생활할까를 세내기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된 첫 만남은

좌담회.놀이 마당.뒷풀이 형태로 진행됩니다.

글 쓰는 순서

— 좌담회를 준비하며

— 총여학생회 및 단과대 여학생부(회) 인사

— 알고 싶지 않으세요?

- 여성운동 및 여학생 운동
- 여성학
- 정신대
- 등록금
- 총선이 다가온다던데...

— 소모임을 제안합니다

— 92학번 신입생 인식 조사

— 신입생 여학우 글

— 너에게 들려 주고 싶은 이야기 -2-

— 함께 불러 보아요

좌담회를 준비하며

매마른 겨울 나무가지에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이며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앳된 얼굴을 한 새내기들이 썰렁한 단국학원 곳곳을 누빌때 선배들은 흐뭇한 설렘에 가슴 떨립니다. 총여학생회 또한 신입생을 맞이하는 준비에 가슴 설레며 새 단장을 하기에 분주합니다.

신입생과의 만남을 고민하고 사업을 계획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입생들에게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일까?

올바른 대학생활의 방향은 어떻게 제시해야 할까?

추상적이기 보다는 구체적인 대학생활을 얘기하여야 하지 않을까?

대학의 구체적인 생활 공간은 어딜일까?

어대생으로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각각의 고민들이 꼬리를 물고 구체적인 사업속에서 풀어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학생활의 각각의 공간에서 생활을 기반으로 신입생들에게 짧은 말 한 마디라도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이야기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좌담회를 생각해 내게 되었습니다.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내는 학생회, 자신의 요구에 기반하여 열심을 다하는 동아리, 여성의 문제를 고민하며 학우들과 함께 풀어내고자 하는 여학생회, 전공의 질 높은 학업을 추구하는 대학원, 학교를 졸업한 현실 속에서 대학을 한 걸음 물러나 볼 수 있는 취업 졸업생.

각각의 구체적인 생활공간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들을 만나뵙고 부탁드렸으며 자신이 무슨 자격이 있겠느냐고 걱정하시면서도 신입생을 만나는 마음에 신입생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수락하시는 분들을 뵈면서 단국학원의 긍지를 느꼈으며 또한 좌담회에 함께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여학생회 및 단과대 여학생부(회) 인사

((총여학생회는요...))

총여학생회는 2,300 단국여학우의 대표기구입니다.

학도호국단 시절을 보내고 올바른 학생회가 부활되면서 막대한 필요성에 의해 총여학생회가 건설되어진지 7년이나 되었지만 여학우들 한명 한명에게 나의 조직으로는 아직 생각되어지지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학생회는 학우들의 힘이 있어야 버티어 나갈 수 있듯이 학우들의 자주적 진출을 기반으로 학우들 스스로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학우들의 학생회가 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총여학생회는 특히나 여학우들의 존재로부터 규정지어지는 모순에 의해 20여년간 "여성"으로 길러지고 사회전반적인 인식으로 인해 소극성, 의존성에서 탈피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여학우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수 있는 다양한 사업으로 학우들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제 8대 나라사랑 총여학생회는 기층단위부터의 소모임으로부터 출발하여 소모임이 정착되고 확대, 발전될수 있도록 중앙의 지도가 기층까지 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기층단대 여회<부>집))를 강화하기 위해서 매 사업의 직접 지도와 지원, 간부학교의 실시, 단대 순회간담회를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 통로의 확보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각 단과대 역시 자립자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행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학우들이 모일수 있는 곳이면 다양한 행사, 교육강좌, 비디오 상영을 실시하면서 여학생휴게실이 유용하게 쓰여질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여성학" 강좌를 구국단국 학우들이 함께 배울수 있도록 정취해내겠습니다. 민중여성들의 삶을 알려내고 그들과 함께 할수 있는 연대사업을 통해 단국의 여학우들이 조국을 사랑할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문리대는요...))

문리대 여성운동의 움직임을 소개합니다.

기존 23대 까지의 문리대 내에서는 "여학생부"라는 유명 무실한 체계가 존재했습니다. 2천 문리인 중 반 수가 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질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존 여성운동의 모습을 문리대 여학우들의 특수성과 주체적인 인자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애정어린 계승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3년 계획!

구체적으로, 92년에는 형식적인 여학생회 수립이 아닌 내용적으로 채워 나가는 소모임조를 조직하고 기존 여학생회의 사업들을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또, 93년에는 92년의 성과물을 토대로 건설준비위원회 활동을 공간 확보와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대망의 '94년에는 당당한 여학생회로 자리를 잡겠습니다.

천천히 빨리!

이것이 92년 문리대 여성운동 조직화의 기조라고나 할까요?

문리대 학생회 부학생회장 사학과 4학년 곽 현 숙
(문리대 여성운동 임시 주체)

((법대는요...))

법대 신입생 여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여학생이 적기 때문에 선후배 및 동기간의 친분이 매우 두텁습니다. 매년 초 선후배의 상견례 및 졸업생 환송식을 위해 모임이 계속되었구요, 우리는 도서관 신관에서, 학생식당에서 수시로 모일수 있는 소수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부분들은 법대 여학생들의 모임 속에서 다함께 풀어나갈 것입니다. "대단히 보수적인 남학생들 속에서 소수인 여학생들은 항상 주시의 대상이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틀을 느끼게 되는 곳이 우리 법대입니다. 입학과 동시에 도서관 자리를 잡고 몸은 밖에서 놀아도 가방은 도서관에 있도록 해야죠, 선, 후배 그리고 교수님 동기간에도 막대한 애의를 필요로 합니다."

((정경대 여학생회는요...))

92학번 학우들과 함께 출발하는 제 4대 정경대 여학생회는 3계학과 여학우들을 위한 사업들을 해나가는 곳입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사업을 통해서 여러 여학우의 복지를 추구하는 여학우들의 자치기구가 되고자 합니다.

50여명에 불과한 여학우가 남학우 중심적인 단과대 내 특성과 사업들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떳떳한 정경인의 하나로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대 여학생회는 여학우뿐만 아니라 모든 정경인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해 나가는 곳입니다. 정경인의 문제를 모든 정경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사업들을 학생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제 4대 여학생회에서는 여학생회실을 모든 정경대 여학우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과에 치우치는 여학생회가 아닌 모든 여학우를 위한 여학생회가 되도록 의견 수렴 창구를 통해 여러 여학우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학생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상대 여학생부는요...))

안녕하세요?

많은 어려움을 딛고 우리 대학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상경대학은 많은 남학우들과 소수의 여학우들이 어우러져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여학우들에게 있어서 소외감이...., 편안함으로 포장된 남녀차별이 어느곳보다 심하게 나타납니다.

"여자가...., 그냥 가만히 있어!"

"집에 일찍 가라. 인신매매 당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어느 한 쪽만의 잘못도 아니요 우리의 그릇된 사고 방식에서, 교육에서, 역사속에서 나타난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상경대 학생회 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여학생부와 여성문제 소모임인 "까비까비물똥" (~이루어져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편파편파 환영합니다.!!

((공대 여학생부에 대하여))

'아이의 울음'이 먹을 것을 요구하는 '최대의 수단'이듯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스스로 얻어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민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공과대학이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 정서들이 전체 단위로 뭉뚱그려져 남학우 위주의 사고방식과 사업진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엔 한계가 들어나며 이로 인해 여학우들은 점점 개인적인 성향으로 모든 것을 끌어 나가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옹기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학우들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인한 의존성과 소극성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한정시켜 버리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문제들을 우리 여학우들 스스로가 발견하고 여학우뿐만 아니라 남학우들과의 문제공유속에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서 여학생부는 자리매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들을 위해 공대 여학생부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통해 하나하나 다가설 것입니다.

첫째, 현재 공대 8층에 있는 선인장(여학생방)의 활성화를 위해 그 곳에 여러종류의 도서를 비치해 놓을 것입니다.

둘째, 여학우 여러분들의 친목도모, 대화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가지 소모임을 제의합니다.

셋째, 여학생부의 사업 내용공유와 함께 여학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실을수 있는 소식지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발간할 것입니다.

넷째, 여학생부의 독자적인 사업을 이루기 위해 여학생회로의 건설준비위원회를 결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이루어는데 있어서는 이제 공대 여학우들만이 아닌 남학우들과도 함께 공유되어지고 고민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주, 혁신 공대 여학생부는 여학우뿐만 아니라 남학우들에게도 귀를 기울여 듣고, 타상공론만으로 그쳐버리는 사업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여 사업들을 실천하고 성과물들을 얻을 수 있는 여학생부가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사대 여학생부는요...))

-지구의 절반은 여성, 사범대의 60%는 여학생-

우리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고추를 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얼굴에 그늘을 주고 태어나 때로는 콩쥐와 같은 억압을 받으면서도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만 잘하면 된다는 신데렐라의 꿈을 꾸도록 키워 지거나 어렵게 대학 졸업장을 소지하여 취업해도 커피심부름이나 회사 내의 밝은 분위기를 위한 "직장의 꽃" 또는 남자 사원의 보조 역할 정도로 밖에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이 없다면 이 세상조차 존재하지 못할진대 왜 이런 여성경시중조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학생부는 인간으로서 여성의 지위를 정당하게 보장받기 위한 현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여성으로서 창조적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부서입니다.

특히 여학생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범대에서는 청년학도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여학생의 지위와 역할, 졸업후 여교사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전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에 기초하여 총여학생회와 단국대내 여학생 운동에 함께 할 것입니다.

92년 사범대 여학생부의 주요 사업은,

첫째, 여학생의 소극성을 깨기 위한 다양한 모임을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올바른 연애관, 이성관을 갖기 위한 성교육 강좌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할 것입니다.

셋째, 기존에 있는 각 과 여학생 소모임과 여학생부의 연대 속에서 사대 특성에 맞는 여학생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넷째, 이상과 같은 여학생부의 독자적인 활동외에도 사범대의 모든 행사속에서 폭 넓고 활발한 여학우 참여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여학생부는 절대 남성을 여성의 적으로 규정하는 대적 선상에서가 아니라 함께 존재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동지로서 결합하는 실천적인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모든 훌륭한 남성은 훌륭한 어머니가 있기에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음대 여학생부는요...))

음대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합격 축하 인사를 수없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더불어 한 마디 붙여 진심으로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음대 여학생부는 올해도 4년이 됩니다. 다른 단과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여학우가 많은 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학생부의 필요성을 그다지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입생 중에 단지 17명만이 남학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음대 학생회를 이 17명의 남학우들이 이끌어 나간다고 해도 선부분 짐작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음대 여학우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나타난 소극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 음대 학생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학우의 단결을 기대합니다.

"저희 음대는 3개의 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악과, 성악과, 작곡과..."

음대의 특성에 대해 이렇게 적으려고 하니 새삼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며 개인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는 주위 환경의 영향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그 전까지 생활해 온 개인 생활로 인해 함께하는 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배의 입장에서 여러 신입생 학우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면 다른 단과대에 없는 특성을 실려 좀 더 발전하는 음대,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발전하는 단국대를 만듬에 있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야간 여학생회는요...))

- 야간 교육은 경제적이유로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으나 사회적 뿐 아니라 교내에서도 복지 및 교과과정에서 심각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학생회는 더욱 소외되고 있는 일반 여학우들 뿐 아니라 직장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현실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에 현실적인 여선문제 뿐 아니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 여학우의 소모임을 마련하여 서로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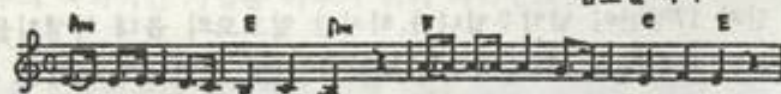
2. 정책 및 공약

- 1) "여성 문제 연구회"의 동아리화
- 2) 과 여학생부(회) 강화
- 3) "직장 여학우 모임" 강화
- 4) 여학우 복지 개선 — 생활 정보란의 강화, 하계터의 활성화
- 5) 낙서판 강화 — 여성 문제 인식, 여학우들의 의견 수렴
- 6) 월간지 발간 — 여성문제 나눔판 내용, 여학우들의 글 소개, 생일축하

(함께 볼러 보아요)

딸들아 일어나라!

김호철 작곡



1. 어두웠던 밤 지나 새 백 이 일어불온 땅 녹아 새 색 이
2. 우-리는 이 땅의 노 동 자 역-사의 주 인인 노 동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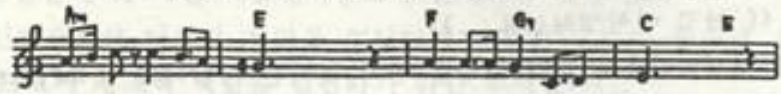
케케묵은남은를 싸들갈라버리고 딸돌아 일 어나 라케어 라 이땅
더이상벼랑끝에 흔들릴수는없다 딸돌아 일 어나 라케어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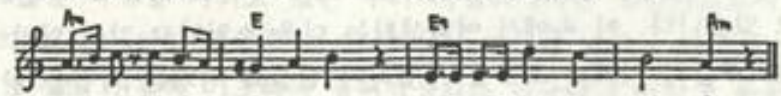
의 노동자 로 태어나 자랑스런 딸로 태어 나



사람도 행 복도 다 빼앗겨버리고 참아왔던그 시절 몇 몇 해
고귀한 모성보호 다 빼앗겨버리고 참아왔던그 시절 몇 몇 해



나가자! 깨부수 자! 성 차별노 동작 취



물치자! 루쟁이 다 - ! 여성해방노 동 해 방

여성운동 및 여학생 운동

우리나라 여성운동이 안고 있었던 중심적인 두가지 고민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무권리 상황, 차별, 비참한 현실이 어떤 원인에
서 비롯된 것인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식을 하고자 하는 것과

둘째, 분단, 외세와 독재의 억압, 자본의 착취등으로 얼룩진 우리사회를 변혁시키는데 여성이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민의 과정은 사회전체에 대한 새로운 구조적 인식과 세계관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87년 민중항쟁과 88년의 통일운동의 고양 이후 실천속에서 정립되기 시작한 자주사상의 기본원리, 사회운동의 본성에 대한 심사숙고를 통해 여성운동은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천제, 여성운동은 여성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여성들은 자연과 사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자연과 사회제도, 사상적 구축을 탈피하고 기초해 나간다는 점에서 민중운동과 본질적인 속성을 같이 하면서도 여성을 남성에게 의존시키는 것,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통해 의존적 삶 자체가 여성들의 생존이자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 등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의존, 억압체제를 유지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 삼은 지배세력과 구조에 대해 투쟁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독자성과 특수성을 가진다.

이에 여성운동은 생활속에서 여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의존적인 굴레들을 스스로 벗어 던지고 자주적인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제 1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여학생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의 구속과 가족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해 나가면서 가족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없는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계속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남성(이인)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서로의 자주적인 삶을 위해서 바랄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와 같이 생활의 자주, 자립성에 기초한 운동을 해나가려면 여성들의 뿌리 깊은 사상 및 의식의 생활성, 의존성을 개조하는 노력과 함께 수 십년간 길러진 수동성, 소극성을 고쳐 나갈 수 있는 실천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주인되는 조직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여성운동의 주인은 여성대중이다.

운동은 현실과 동떨어진 논의나 선전, 행사, 캠페인 위주의 활동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여성들의 생활속에 뿌리내리는 운동으로, 대중들의 운동으로, 대중 자신의 조직으로 대중들의 손목 잡고 친구도 데려오고 동생도 데려오고 선후배도 데려와서 확장되어 가는 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

여학생운동 또한 여학우 대중의 현실속에서 여학우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는
여학생 조직으로 굳건히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세계, 여성들의 자주적인 대중조직을 자주, 민주, 통일과 여성들의 해방, 자주화를 위해 실천하는 조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일 제국주의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사회이며 제국주의 나라 노동자의 1/4정도 되는 저임금 구조 속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계층이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요, 여성농민이다. 또한 이러한 가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의 질병, 모성보호 파괴, 자녀교육 문제, 주거환경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이땅의 민중들이요, 주부들이다. 또한 분단의 상황속에서 주한 미군 부대의 위안부로 생활하는 기지촌 여성들, 자식과 남편

편을 국가보안법의 율가미에 빼앗긴 민가협 어머니들, 이렇듯 식민지 자본주의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건만 여성의 역할을 가정, 가사의 영역에 묶어두는 사회적 제약과 지배자들의 교묘한 여론 조작에 의한 여성우매화 정책으로 여성의 정치적 각성은 낮다.

여대생 또한 예외는 아니다. 사회의 지성인이라는 여대생들도 대다수는 전공공부와 장래의 취업, 결혼, 연애, 좀 더 아름답되지는 것 등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청년학도로서 기지는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에 강하고 선진사상과 시대추세에 민감하며 민족성 각성이 빠르고 높은 조직성과 투쟁력을 자신의 본성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작은 모임과 만남속에서 자연스러운 실천을 모색하며 사람의 변화를 중심에 놓고 자발성에 의한 정치적 각성을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다.

내재, 서로에 대한 애정과 책임심 속에 여성들의 집단주의를 높여나가기 한다.

많은 여성들이 가정의 영역에 묶여 있고 사회활동의 테두리가 좁다 보니 여성들은 가족주의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고립성을 탈피하기 힘들다.

여학생의 경우, 일찍 집에 가야하는 등 가정생활에 묶이면서 자신의 소극성등에 의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활들이 많이 나타난다.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애정과 이해 속에서 허물없는 관계를 만들어나가고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는 화목한 집단속에서 사람의 귀중함을 배워나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과제와 더불어 여학생운동의 방향 또한 함께 모색하여 보았다. 이에 우리는 작은 모임에서부터 실천적인 방법을 생각해 내며 자주적인 여성으로 변혁운동의 주체로서 일떠서야 할 것이다.

(입고 싶지 않으세요?)

여성학

여성학은 성차별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그 능력과 개성이 무시된 채 사회구조적으로 강제와 억압과 굴종을 요구받는데서 성립한 것으로 기존의 학문체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학문이기 때문에 아직 체계화 되지는 않았지만 여성학의 성립 배경과 근거를 바탕으로 여성학을 범주화 했을때는 기존의 제반 영역에서, 여성문제의 과학적, 역사적 인식과 그에 기반한 문제해결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남녀평등의 해방된 사회를 이룩하도록 실천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한국사회에도 여성문제의 인식이 심화되면서 1977년 이대 학부 교양과목으로 개설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올바른 교육이념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이 실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학원의 주인인 교수, 학생, 교직원 모두가 주동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학문영역 안에서의 부단한 변화를 수용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여성학은 특정 과의 여학우들에게만 국한되는 학문은 아니며 그렇게 국한되어졌을때 여성학은 올바른 실천학문으로 자리잡지도 못할 것이다. 더 더욱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에서 여성만이 올바르게 자각하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성"의 차이로 인해 더 이상의 불평등과 억압이 없도록 남성, 여성 모두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본교는 86년에 "생활과 교양"이라는 교양강좌가 신설되었으나 올바른 여성학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서 강의 내용, 전문적인 전공강사, 강의 방식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으며 교과과정의 비합리성과 '교과과정 개편위원회'의 부재상태 속에서 이 또한 학교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강되었다.

이에 여성학을 전문적으로 일괄 담당, 관리해내는 담당부서의 신설 및 여성학이 올바른 여성의 관점을 가진 진보적 학문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편에 있어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여성학 쟁취에 있어 8대 나라사랑 총여학생회에서는 학우들의 대중적인 인식을 피하면서 학교측과의 협상을 통해 올바른 여성학을 마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입고 싶지 않으세요?)

정신대

해방된지 48년, 허리가 잘린 지 48년.

일제 때 애국 봉사대, 근로 봉사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14세부터 30대의 이 나라 여성들이 종군 위안부로 끌려 갔다. 10만에서 20만으로 추정되는 그 본들은 지금까지 역사의 암흑속에 묻혀 있다. 종군 위안부의 하사품으로서 물품으로 취급되어 군마의 수는 알지언정 그 인원의 파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잇따라 당시의 문건이 발견되면서 기간 발뺌을 해오던 일본이 드디어는 덮미가 잡혔다. 12세의 국민학생마저도 역사의 치욕을 걸머져야 했으며 일본국왕의 칙령에 따라 전시내각이 총괄 지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일본의 비인간적인 작태가 한인뿐 아니라 중국인, 필리핀인까지 포괄되어 국제적 외교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치욕적 역사를 어떻게 되돌아 보아야 하는가!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긴 채 이 땅 여성의 성마저 침탈당해야 했던 그 때의 역사는 민족의 어머니를 유린한 일본의 민족말살 정책의 일환이었다.

일본의 비인도적 행위를 규탄함은 물론 징용자와 원폭피해자, 전범피해자, 사할린 동포 문제등 일제의 피해자 대책을 광범위하게 요구해야 할 것은 당연하며 역사발전의 원리를 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볼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지금의 현실 또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치욕의 역사를 어떻게 보듬어 왔던가!

그 구체적 노력을 살펴 보면, 1988년터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정신대 문제가 파헤쳐지기 시작했으며 1990년 11월16일에 '한국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가 정식으로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단체의 노력에 반해 정부의 태도는 실로 반민족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90년 12월 14일자로 '한국교회여성 연합회'앞으로 발송된 외무부의 문서는 단적으로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문항 6을 보면,

"일본정부에 대한 보상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양국 정부간에 국제보상의 권리, 의무는 일단락된 사항이므로 정부차원에서는 대일 보상제기는 불가하며 민간차원에서 제기한 소송문제에 정부가 간여할 입장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965년에 저일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역사의 책임을 외면함은 물론 지금에 이르러서도 변함없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실로 아연하다 하겠다.

민족의 자주성에 대한 심각한 물음은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기에 충분하다.

본단의 아픔과 성적 모순을 동시에 안고 이민족의 정액받이 노릇을 또다시 겪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이 지금 이땅 여성들의 자주성의 현실을 대변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일본의 근화발에 짓이겨진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되살아나 우리의 현실속에서 또다른 정신대의 아픔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본단의 식민지의 아픔을 성적 모순을 첨예하게 겪는 이 땅 여성들이야말로 진정 민족의 자주성을 되찾는 투사로 민족해방의 염원속에 끝까지 싸워야 하는 여성전사로 서아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등록금

우리는 학원의 자치와 자주학원 건설을 위한 우리의 학원자주화 투쟁의 영역속에서 등록금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기간 등록금의 인상폭만을 바라보면서 등록금 투쟁의 의의와 역할을 방기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92년 등록금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그 의의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등록금 투쟁은 교육 제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둘째, 등록금 투쟁은 교육 제정의 근거인 교육 내용과 교육 여건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셋째, 등록금 투쟁은 청년학생의 자주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넷째, 등록금 투쟁은 우리의 자주적인 학생회를 더욱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다섯째, 등록금 투쟁은 학원의 자주적 운영과 민주적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여섯째, 등록금 투쟁은 백만 청년학도의 동일한 요구사항으로 전국적인 연대를 할 수 있으며 현 정권의 비교육적인 태도를 폭로해 낼 수 있다.

위의 역할 속에서 전개해 온 단국학원 내 92년 등록금 투쟁은 기간 학원자주화 투쟁 속에서 정취해 낸 합의 사항을 전면 다시 확인하고 요구해 내면서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

다시 확인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결산 심의 위원회를 1991년 1학기 내에 정식으로 구성할 것.
(학교입장: 기구의 구성은 불가능하며 예결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자로열람과 설명을 통하여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2. 교수임용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등록금 고지서 발부시, 학생회비를 통합 고지할 것.
4. 등록금 책정시 학년, 계열 구분없이 동일 X를 적용할 것.
5. 병원완공 후 수익금 전액을 학교 전입금으로 확보할 것.
6. 제 3 캠퍼스에 관한 제반사항을 적정한 시기에 공개할 것.

등록금 인상안의 협상이 계속 걸릴되는 상황속에서 학교측이 일방고지를 하려다 학생측의 강력한 반발로 일단은 학생측과의 합의없이 일방고지를 안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학교당국과 학생측과의 등록금 인상안을 살펴보면,

학교측: $75/100 \times (15.3 + 4.2) + 25/100 \times 9 = 16.9\%$

1) 2) 3) 4) 5) 6)

1) 납입금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2) 인건비 예상 인상률. 3) 추가 교수 임용에 따른 인상률. 4) 납입금 중 제반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5) 소비자 물가 상승률. 6) 등록금 인상률.

학생측: $75/100 \times 9.5 + 25/100 \times 9 = 9.4\%$

이러한 학교측 인상안의 부담성을 살펴보면,

첫째, 추가 교수 임용분 4.2%는 인건비 상승률이나 물가 인상률 등 자연발생적 요인이 아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이것은 기존의 교수의 수를 확보하지 못한 학교당국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등록금 인상으로 충당 될 부분이 아니다.

둘째, 많은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 상황을 볼때 작년 추곡 수매가는 7%밖에 인상되지 않았는데 등록금은 그 배 이상 올린다는 것은 돈 없으면 학교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셋째,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할 때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국가 지원금 확충에는 신경쓰지 않고 등록금 인상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학에 대한 국고 지원은 전체 예산의 1.1%)

마지막으로 지난 2월11일 2차 확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학생측 입장을 일린다면,

1)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고지할 때에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학교측에 항의한다.

2) 등록금 일방고지시 추가등록기간까지 등록을 보류한다. (추가등록기간은 개강 후 1달)

3) 지금까지의 등록금 협상 진행사항을 학우들에게 전화나 편지로 알려낸다.

학원자주화 투쟁의 영역 속에서 등록금 투쟁이 올바른 자리매김 되어야 하며 이러한 등록금 투쟁은 학우들의 대중적인 투쟁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함께 불러 보아요)

자주적 학생회가

등록금 인상과 학원비 시 우리 학생들의 삶에
 소중한 삶을 위협해 가는 1대 당 당한 청년 아 여제
 여 대한 소중한 것으로 한 삶은 어 주 자 너의
 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새 운명 개척해 자 격나
 장 뜻과 바라는 지로 대국 개 지는 걸 - 이 외 어 4분
 가 베풀어 준 힘으로 함께 이룩한 내일의 꿈 은 자주
 과 믿음 넘치 는 사랑 한 주인 이 외 주 우리
 와 민주 통치 의 우리 들 세상 임 이 라 찬양
 의 맛 장은 두 손으로 하나 가 베풀어 주 는 자
 련 조국의 명장 위에 희망 찬 등불이 되 는 자
 주 적 학 생 회 여 주 국 단 국의 기쁨이여 라
 주 적 학 생 회 여 조국 사랑의 약속이여 다.

총선이 다가온다던데...

TV와 신문지상에서 “공천”이니 “탈당선언”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선거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말 또한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데...

다가오는 3월 실시 될 예정인 14대 국회의원 총선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는 실로 막대하다고 하겠다.

그 이유라면, 국민들이 내 손으로 직접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겠다고 의지를 표출했던 “호헌철폐”가 이루어졌고 직접선거로써 대통령 선거를 맞이했지만 국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5공비리 정권”의 연이은 노태우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8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아닌 야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한참 유행이었던 것이 야당의 “청문회” 열풍이었다. 군사 정권이 계속된 이래 누구 한 번 털어놓지 못했던 울분들을 속 시원하게 해소했던 계기가 되어졌다.

그 후 너무도 어이없는 “3당 야합”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든 사건으로 온 국민의 기대는 허물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군사정권을 마감하고 기필코 민주화를 실현시켜 내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집권 여당에 붙어서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3당 야합의 주인공 김영삼, 김종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거대 여당 민자당이 출범한 지 3년 _____.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6공정권을 어떻게 여기하고 있습니까?

장바구니 물가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우리들의 살림형편과, 농민들은 죽어도 쌀 수입은 안된다고 하는데도 점점 조여오는 시장개방 압력, 무역적자와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총액임금제를 검토하는 등 임금인상을 한자리 수로 동결하는, 추운 한 겨울에 길거리로 사람들을 나앉게하고 강제철거를 해버리는 등 국민들의 생활고는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간다고들 얘기하신다.

물론 각 계급 계층마다의 민주세력들이 나름대로의 성장을 거듭해오면서 이제는 그 어떠한 탄압에도 과거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해왔다. 그 속에서 아직은 더 많은 대중들을 포괄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일 수 밖에 없다.

이제까지 해방 이후의 역사를 돌이켜 볼때

이승만 정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의 본질이 바뀌었다던가, 국민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는가를 짚어보아야 한다.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선거기간을 통해 우리는 민자당 일당 국회가 있는 후 수 많은 날치기 통과, 노동법 개정등을 국민들과 함께 올바르게 심판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 공간은 작게는 나와 나의 가족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서 “민자당을 낙선시키는_____.” 공통적인 의견으로 집중화 시켜 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있던 야당과 민주정당, 전국연합의 합의하에 단일후보를 내오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금권, 관권 선거가 아닌 우리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민주화로 가는 길일 것이다.

소모임을 제안합니다.

소모임은 나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사회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그에따른 실천을 해내는 작은 실천조직입니다.

20여년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극단적인 이기주의 문화를 생산하는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살아온 학우들은 갑자기 다양하고 방대해진 대학생생활속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우들은 자기에 맞는 동아리를 찾기도 하고, 학생회 사업에 열심히 참가하여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삶의 방향을 세워 나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 내에 존재하는 여학우들의 능력이 과소평가되어짐과 사회로의 진출이 가로막힌 실정속에서 여학우들은 소외되어지고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총여학생회는 삶의 모습을 친한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생활하는 공간에서부터 제기합니다.

단국학원내 여학우 소모임을 정리하면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간에 있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주로 한 모임이요, 다른 하나는 목적의식적으로 여성문제를 논의해보고자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전자의 경우, 법대 여학우 모임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비정기적인 모임으로서 선후배와의 만남, 졸업생 환송식등의 모임을 치루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적 성격을 가지지 못함은 물론, 그 모임 자체가 행사가 있을 때 잠깐 모임을 가지는 것 밖에 못하는, 일상적 결합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무엇보다도 모임의 정기적 정착화가 요구되어진다 하겠습니다.

목적의식적으로 꾸려진 모임의 경우는 상대의 소모임을 예를 들 수 있으며 올바른 여성문제 내용을 지도해 낼 수 있는 단위인 교사모임이 제기됩니다.

정경대 및 공대 여학생부(회)에서도 소모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후 92학번 신입생을 중심으로 소모임을 꾸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적으로 결합되어지는 소모임들이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총여학생회에서도 적극 지도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학번 신입생 의식 조사

정성껏 답해주신 신입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설문 평가를 들어 가고자 합니다. 각각의 문항이 주관적인 관계로 답변이 매우 다양하여 비슷한 내용은 묶어서 정리하였으며 중심 내용만 담고 모든 답변을 실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문 답변: 여학우...147명

남학우...355명

총 계...502명

1. 대학을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요?

분류 항목	여학우	남학우
학업	22%	9.9%
취미 활동(독서, 여행, 스포츠, 음악, 운동등)	28.6%	3.4%
대인 관계	12.2%	10.5%
이성 교제	10.4%	24.6%

2.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대학생활과 어떠한 대학생활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셨는지요?

분류 항목	여학우	남학우
적극적, 자유로운 생활	39.9%	39.8%
학업	19%	10.5%
동아리	10.4%	7.1%
학생 운동	6.1%	3.3%

***대학 생활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는, 대학생활에 적극적인 자세가 크게 드러나며 여학우에 있어서는 학업이, 남학우에게 있어서는 이성 교제가 두드러졌다.

3. 남녀 차별을 느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분류 항목	여학우	남학우
느낀다	56.3%	48.9%
느껴본 적 없다	19%	23.6%
잘 모르겠다	3.5%	2%
무응답	21%	25.6%

4. 여학우들의 자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분류 항목	여학우	남학우
필요하다	73.2%	57.4%
필요하지 않다	15.5%	17.2%
잘 모르겠다	5.6%	10.2%
무응답	6.3%	15.2%

***남녀차별 및 여학우 자치기구의 필요성은 여학우에게 있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우 역시 여학우 자치기구의 필요성에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5. 정신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분류 항목	여학우	남학우
사과 및 배상	35.2%	26.3%
국가적 적극적 노력	10.3%	7.9%
국력 신장	8.3%	9.9%
치욕적 역사	6.9%	8.5%

***정신대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과 및 배상에 대한 답변이 많이 나왔으며 또한 남학우에게 있어 보복조치가 7.9%(여학우 2.1%)를 차지하는 것이 특이 할 만하다.

평가 작업을 마치면서...

전체적으로 남학우와 여학우의 인식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으며 단극의 신입생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생으로서 대학생활의 호기심과 고등학교 때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

적이고 자주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다.

둘째, 남녀 차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으며 여학우의 자치기구의 필요성에 있어 여학우의 권리 보장 및 남녀 평등을 이루는데 필요하다는 원칙과 더불어 스스로의 적극성, 자주성에 대한 지적 또한 날카롭다.

셋째, 정신대 문제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구체적 방도모색 또한 다양하고 진지하였다.

열심히 답변해 주신 새내기 아우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참된 대학 생활 늘 고민하시고 열심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인

전산통계 92 박은정

'결심한 사람에게는 실천만이 남아 있다.'

고 3때 우리반 급훈이었다.

그 때 실천을 잘 했는 지 어땠는 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끊임없이 '왜'라는 단어를 상기시켜 준 대학에 입학하게 된 지금 지난 3년 고교 시절을 회상하니 시원섭섭이라는 말이 어울릴 듯 싶다.

나훈대호의 순수성을 지닌 채 보냈던 그 시절이었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나보다.

그 때 '대학합격'이라는 합격증만 받으면 뭐든지 해결되고 마운대로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합격이라는 이름 아래 있고 보니 또 다른 책임감이 생긴다.

누구나 고3 생활동안 대학생살에서의 환상(?)을 가지고 공부했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마냥 즐겁고 기쁘고, 학기있고.....

"신입생 수련회"를 다녀온 지금 선배님들의 조언 덕분에 조금씩 환상에서 깨어나 어년פות이 대학인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 듯 하다.

그러기에 난 내가 생활해 온 울타리에서 좀 더 넓고 길어지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귀도 활짝 열어 열심히 뛰어다 할 것이다.

현실을 외면하기 보다는 직시하고 (동참할 중 알며)

'나'보다는 '우리'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내게 주어진 진리탐구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사람이라는 것도 하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비록 나중에 어떠한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지라도.....



(너에게 돌려 주고 싶은 이야기 -2-)

젓바퀴 돌리는 어머니

우리 엄마도 다른 엄마와 마찬가지로,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밥을 짓고 난 다음, 차례로 우리들을 깨운다. 우리들은 조금이나마 더 자기 위해 뒤척이고 그런 우리를 보고 안스러워 하면서도 더욱 일어나라고 다그친다.

그아망로 아침이면 우리집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등교시간, 출근시간이 다 닳다 아침에 국, 찌개를 대우는 것만 해도 두 번 이상, 복새통을 치우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아침 식사를 하신다. 그리고 나서 설거지, 청소를 하고 나면 점심 때를 넘어서다. 오후 시간에는 빨래를 하시고 어쩌다 시간이 남으면 피곤한 때문인지 약간의 낮잠을 청한 후 또 가족들의 저녁 식사를 위해 시장으로 향한다.

요즈음은 문단속이라든가 동생 마중은 아버지가 많이 하시지만, 내가 고3때까지만 해도 줄곧 엄마가 했다. 동생이 하교하는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엄마의 하루 일과는 거의 끝나는 셈이다.

이렇듯 엄마의 하루는 다란뿔 젓바퀴 돌 듯 반복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마란 뉘네 그런 일만 하는 것으로 당연히 여겼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엄마의 이런 생활이 단순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때가 많다. 그래서 좀 더 능률적으로 조리있게 끝내고 나훈대호 엄마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권해도 봤지만, 하루내내 방바닥에 엉덩이 붙일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신다.

옛날 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가사노동에 하루를 보내는 주부가 대부분이나 생각된다. 엄마들이 간혹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경우도 가사일에만 얽매어 바깥일을 너무 몰라 서로 대화가 잘 안 통하기 때문이다. 물론 엄마의 하루를 이렇게 만든 건 가족 모두의 책임이다. 엄마로서 좀 더 학고한 위치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입창 불려 보아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윤지은수) 조제형 작사
윤민석 작곡

서울-에서- 평 강-까지- 데시요금 이만-원 -
분단-세력- 물 아-내고- -물일만 된다-면 -
소련도 가고- 달나라-도가고- 못가는곳없-는-- 데
돈못벌 아도- 나-는-- 좋아- 이산가족데우고-갈 때
광 죽보 다 더 가 까운 평- 양은 왜 못- 가
물 아을 때 빈 차 걸당 을다 죽은 내형제 가
우 리-민족- 우 리-네땅- 평 양민제 못- 가 지
무 운-편지- 원 훈-이나- 거 두-어 오-
경음기를 물리 며 서울에서 평 양까 지
꿈 속여라도- 신 명 나게- 달 리-를 탄다 -

(입창 불려 보아요)

얼굴 찌푸리지 마아요

최정연 작사 · 작곡

얼굴 찌푸리지 마아요 모두가 - 기
힘 들 잡 아요 -
봄의 그날 위해 싸우-는-동지 물이 있잖아요 -
흔들리고 느껴 질 때면 주위를 둘러 보세 요 - 이
렇게 많은이들 모두-가-나의 동지 랍니다 -
우리 가는길이 걸 코 십 킬 많을 거 예 요 - 때로는
모 진 탄압에 좌절도 하겠지요 - 하지만
동지 들 과 함께 라면 두렵 지않아 - 노동
해 방 그 날 까 지 진 진 진 진 진 진 하 자